

베스트셀러를 보면 시대상이 보인다



교보문고 1980년대~2010년대 베스트셀러 분석

2017년 우리나라는 격랑과 격정의 한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사다난했다.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사회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페미니즘 이슈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학출판계에서도 이를 반영하듯 관련 책들이 인기를 끌었다. 출판시장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기능자 가운데 하나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책 출간과 판매의 양상이 달라진다.

교보문고는 최근 1980년대 이후부터 2010년대까지 베스트셀러(교보문고 판매 기준) 분석을 통해 당대 시대상이 독서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했다.

1980년대는 통속과 풍자의 시대였다. 정치적 억압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상위권에 올랐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김홍신의 '인간시장'이었다. 이 작품은 1982년 베스트셀러 1위였고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종합 베스트셀러 20위권에 들었다. 이 밖에 '꼬방동네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 '만다라'와 같은 작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1980년대 하반기는 시와 소설이 꽃 피우던 시대였다. 출판물에 대한 검열과 탄압 탓에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되는 시가 시대 정신과 맞물렸던 것이다. 1985년 베스트

통속과 풍자의 시대 80년대

김홍신의 '인간시장' 1위

IMF 겪은 90년대 하반기

마음 달래준 에세이 인기

2000년대 실용서 상위권

2010년대 정의·힐링 열풍

셀러 종합 2위는 이해인의 시집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였고, 서정운의 서정시 '홀로서기'는 1987~1988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시대 대표 인기 작가인 이문열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다수의 작품이 올랐다. 우리 사회를 한 교실에 빚대어 풍자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시대와 충돌하는 가치를 풀어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등이 사랑을 받았다.

1990년대 상반기는 빠른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독서가 확대되던 시기였다. 80년대의 억압된 사회 분위기에 문학에 집

중됐던 독자들의 시선이 다양한 장르의 책 읽기로 관심이 옮겨갔다. 인문, 자기계발, 컴퓨터, 실용서 등 장르의 도서가 출간됐으며 '반갑다 논리야', 스티븐 코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한편으로 '소셜 동의 보감', '소셜 토정비결', '소셜 복민심서' 등 역사 소설도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1990년대 하반기는 IMF 이후 경제상황을 대변하는 책들이 주목을 받았다. 어두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에세이들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가시고기' 같은 책이 1위에 올랐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변화'와 '혁신'이 키워드가 됐다. 상반기에는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요구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실용서가 상위권에 진출했다.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아침형 인간', '설득의 심리학'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하반기에는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독서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업가가 대통령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과 무관치 않다. 2006년 '머시멜로 이야기', '배려' 등 스토리형 자기계발서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그러나 독서시장의 '성공' 기조는 리먼브러더스 금융위기로 분위기가 반전된다. 2009년에는 소설과 에세이가 다시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권 중 47종을 차지

했다. 2010년 상반기는 '정의'로 시작해 '힐링'으로 마무리됐다. 2010년 1위로 시작해 2011년 2위에 오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인문학 열풍에 불을 지폈다. 이어 '청춘멘토'로 떠오른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2012년 1위를 차지했고, 2013년 1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헤민 스노우로 멘토의 바통을 넘겼다. 2015년에는 기시미 이치로의 '마음받을 용기'가 성공과 경쟁으로 부침을 겪는 독자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2017년 현재까지 2010년대 하반기는 정치 이슈에 민감한 시기였다. 올해 소설 분야 1위 '82년생 김지영'은 연초부터 정치권에서 이슈가 돼서 줄곧 관심의 대상이었다. 정치사회 분야에선 '문재인의 운명', '대한민국이 묻는다' 등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지금 다시, 헌법' 등도 시대를 반영하는 책으로 관심을 모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읽었던 '명견만리' 시리즈는 경제경영분야 상위권을 차지했다.

교보문고 측은 "올해 정치 이슈에 대한 관심이 도서 구매로 이어져 2017년 정치사회 분야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21.5%가 올랐다"며 "정치 사회 및 경제적 시대상황과 도서 판매, 베스트셀러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분석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극단 갯돌 오키나와서 '문순득 프로젝트'

표류국가 마카오·필리핀 단체 참가 5박 6일 교류행사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동물의 나라 광장에서 열린 '문순득 프로젝트' 중 '한국전통문화시민워크숍 탈춤배우기' 모습.

극단갯돌(대표 문관수)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문순득 프로젝트'를 펼쳤다.

이번 오키나와 방문은 지난 3년간 꾸준히 펼쳐왔던 문순득 표류국가 상생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한국의 극단갯돌과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최성환 교수, 남도민속학회 이운선 교수, 마카오, 필리핀 대표단 등 총 20여 명이 5박 6일 일정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했다.

오키나와는 1801년 문순득이 태풍을 만나 처음으로 표류했던 곳이다. 그는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시 태풍을 만나 필리핀 비간에 표류하고 마카오를 거쳐 중국을 횡단해 3년 2개월 만에 고향인 신안 우이도로 귀향했다.

방문단은 오키나와에서 순다청년회 에이사팀과의 교류공연, 류큐무용워크숍, 교류식, 한국문화시민워크숍, 국제세미나, 평화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마쳤다. 이번 오키나와 방문으로 인해 신안 출신 문순득을 국제사회에 알렸고 문순득이 표류한 국가와의 새로운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방문단으로 동행한 남도민속학회 이운선 교수는 "극단갯돌의 문순득 프로젝트는 민간교류의 저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프로젝트는 동아시아 평화운동이며 국가가 나서서 하지 못하는 일을 NGO들이 나서서 진행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을만하다"고 프로젝트를 평가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서구관광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내달 25일까지 서구청 로비



▶금상 '봄의 소리'

제1회 광주 서구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전시회가 28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서구청 로비에서 열린다. 전시는 서구문화센터(1월 29일~2월 2일), 농성역, 상무역(2월5일~2월 28일)에서도 열린다.

광주시 서구청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우수한 지역관광자원을 독창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사진을 발굴, 명품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역사 명소, 축제, 전통문화행사, 전통시장 등을 주제로 한 사진 작품 268점이 접수됐으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에

서심사를 맡아 60점을 선정했다.

입선 이상 선정된 작품은 응모자의 동의에 전시회, 입상작 도록, 신년 연하장, 구경 홍보지 등의 제작에 활용되거나 구 홈페이지 사진 갤러리에 소개된다.

최고상인 금상은 '봄의 소리'를 출품한 이현숙(전북 익산시)씨가 수상했으며 구부의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은상=서창만드리축제(광주 광산구 윤영진), 축하비행(광주 북구 최규욱) ▲동상=평암의 가을(인천 남동구 박종근), 운전 저수지 연꽃(광주 북구 임미정), 만귀정(광주 서구 최정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음악역사·자료·인물 총정리

음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 '광주 근·현대 음악사' 발간

(사)한국음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회장 김유정)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광주·전남 지역의 음악적 자료와 음악유산을 정리하고 음악인들의 자취를 돌아보며 기록에 남기고자 '광주 근·현대 음악사(사진)'를 편찬,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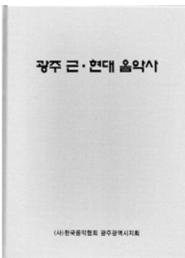
이 지역의 음악자료를 전반적,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광주의 음악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광주의 공연예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학

술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발간됐다.

'광주 근·현대 음악사'의 큰 흐름은 대한민국 서양음악의 초기 유입 단계부터 광주·전남 최초 음악 활동 역사를 거쳐 1987년 광주지하철에서 광주광역시로 승격된 전남음악협회에서 광주음악협회로 분리된 이후의 현대음악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현대음악사에 공헌한 음악인, 기관, 단체 소개와 공연 연보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총 504페이지 분량이다. 사업비는 8500만원(광주광역시 지방보

조금 8000만 원, 광주음협 자부담 500만 원)이 소요됐다. CD로도 제작된 음악인들 외에 국공립도서관, 음악과가 있는 전국의 대학교에도 책자와 함께 배포할 계



획이다.

김유정 (사)한국음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 회장은 "현재까지 한국의 근대 음악사만 정리돼 있을 뿐 지역적으로 음악사 발간 시도가 없었다는 것과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역사의 산 증인들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또, "광대한 양의 음악 자료를 수집하고 한 권의 책으로 집약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책이 완성되기까지 원로음악인들의 자문과 협조가 큰 힘이 됐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음악인들이 문화구조 의식을 인식하며 발전적인 음악계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p>아모리이온</p> <p>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아모리이온 롱바디</p> <p>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아실리 바디슈트</p> <p>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p>	<p>비비드 아모르</p> <p>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

대표전화 1588-2219